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상요품(雙要品) ③

賢夫染人 현부염인
如近香熏 여근향훈
進智習善 진지습선
行成薰芳 행성결방

어진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내나는 물건을 가까이 한것같이
지혜가 늘고 선을 익혀서
깨끗한 법향을 이루게 된다

造憂後憂 조우후우
行惡兩憂 행악양우
彼憂惟難 파유유구
見罪心難 견죄심거

근심거리 지으면 뒤에도 걱정하고
악을 행하면 예서 근심 제서 근심되니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두렵고
지은 죄를 보면 마음이 떨린다

造喜後喜 조희후희
行善兩喜 행선양희
彼喜惟歡 피희유환
見福心安 견복심안

기쁨을 지으면 뒤에도 기쁨이라
선을 행하면 예서도 즐겁고 제서도

“지혜늘고 선을 익혀 법향 이루면
향내나는 물건처럼 남을 물들이네”

즐겁고
저것도 기쁨이요 이것도 즐거움
지은 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失道爲自喪 실도위자상

계율은 감로의 길이 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된다
탐하지 않으면 죽지않고
도를 잃으면 저절로 죽는다

慧知守道勝 혜지수도승
終不爲放逸 종불위방일
不貪致歡喜 불탐치환희
從是得涅槃 종시득도라

지혜롭게 도의 길 잘 지킬 줄 알면
마침내 방일하지 않게되니
탐하지 않아서 기쁨에 이르고
이를 좇아 성도의 즐거움 얻게된다

常當惟念道 상당유념도
自強守正行 자강수정행
健者得度世 건자득도세
吉祥無有上 길상무유상

마땅히 도를 늘 생각하여
스스로 굳세게 바른 행을 지키면
굳센이 생사언덕 건너뛰어서
위없는 길지에 이르리라

龍眼

不推止觀 불유지관
聚如群牛 취여군우
非佛弟子 비불제자

교묘한 말로 많이 구하고
방탕하여 계율 안지키며
음욕 분노 우치를 품어서
지관을 생각치 않는다면
소 때가 무리져 모인것 같이
진정한 불제자가 아니니라

時言少求 시언소구
行道如法 행도여법
除淫慾癡 제음노치
覺正意解 각정의해
見對不起 견대불기
是佛弟子 시불제자

알맞은 말로 구함이적지만
법답게 도를 행하며
음욕 분노 우치를 없애고
바른 뜻 깨달고 뜻을 알아
경계에 부딪혀도 빈뇌일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불제자 이니라

戒爲甘露道 계위감로도
放逸爲死徑 방일위사경
不食則不死 불탐즉불사

방일품(放逸品) ①

戒爲甘露道 계위감로도
放逸爲死徑 방일위사경
不食則不死 불탐즉불사

기쁨을 지으면 뒤에도 기쁨이라
선을 행하면 예서도 즐겁고 제서도

마땅히 도를 늘 생각하여
스스로 굳세게 바른 행을 지키면
굳센이 생사언덕 건너뛰어서
위없는 길지에 이르리라

혜양스님 (대광선원 조실)

“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자리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도(道)를 닦는다' 또 '도를 얻
겠다'고 흔히 말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
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것인가 곰곰히 생
각해 봅시다. 도를 얻겠다고 출가한 스님
들은 물론이고 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이 문제로 고민해 보았
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도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답
을 찾지 못했나요. 만약 그 진리를 알고
자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리 모
으나 저리 모으나 마음만 알면 되는 것
입니다.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
을 세든지, 엄불을 의든지, 일념으로 마
음만 모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올마니반
메혹'을 해서라도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스스로 도를 통하지 못
하면 어느 누가 와서 참선법을 물어도
'나는 모른다'고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
았지요. 꼭 도를 통한 사람만이 그 도리
를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보통한 스님들
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이 지난 생애 참선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생애도 저렇게 참선을 하려나. 그러
면 저 사람이 전생애 공부하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달입니다. 그리고는
화두를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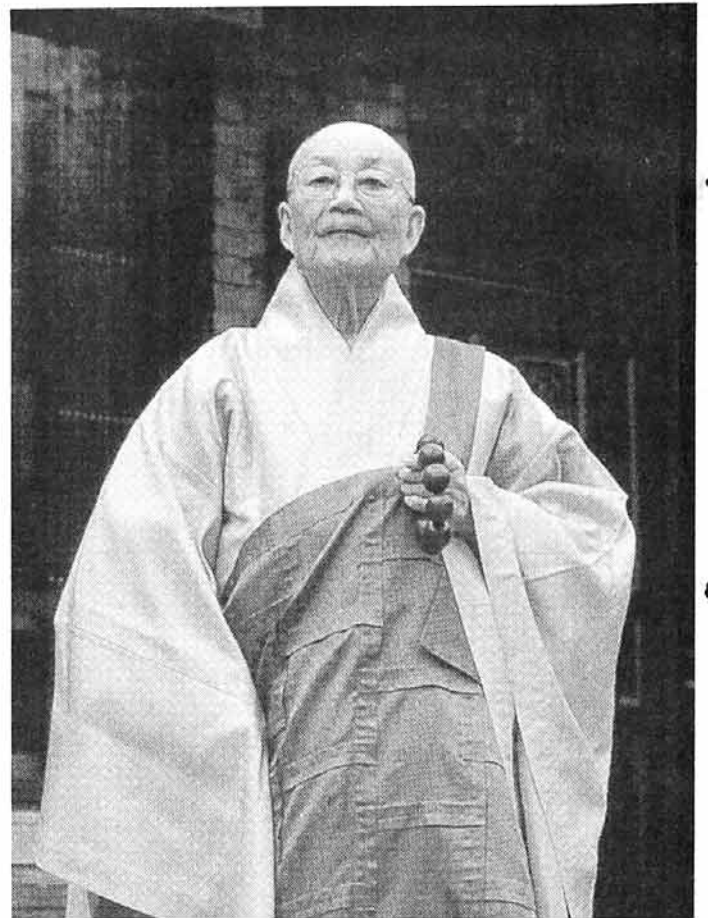
도를 통했으니까 모든 이치를 확연히
알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올다.
이 화두였구나' 하고 화두를 찾아 주시는
생이지요. 그러나 이 화두를 받은 사람은
지난생부터 자기가 공부하던 화두를 아
니까 용맹정진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승이 정진을 잘하려면 반드시 깨
우치고 말겠다는 금강과 같은 발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이
끌어 줄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화두란
전생애 공부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공
부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제대로 찾는 사
람이 찾아나 되겠습니까. 화두가 제대로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화두를 만나
기 어려운 사람이 주력을 일념으로 하면
됩니다. 수월스님도 천수대비주(千手
大悲咒)로 득도했습니다. 수월스님은 천
수관음의 삼매를 표시하는 이 다라니를
수지독송하면 온갖 죄업이 소멸돼 깨달

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가모니 부처님은 관법 하나로 도를 이루
셨지만 말법종생은 제대로 못하는 것입
니다. 참선과 주력 모두 해야 합니다.

또 아마타불을 많이 부르십시오. 이미
타부처님은 저 멀리 서쪽 하늘에 계신분
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
으십시오. 바로 마음속에 있는 아마타불
을 일심으로 부르면 세상보는 눈도 달라
지고 이슬살이가 즐겁게 생각될 것입니
다. 그러면 그속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
는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법이지요. 칠축
같이 어두운밤 희미한 등불하나를 의지

- 1900년 경남 하동 생
· 23년 일본 경도 임명관대학 수료
· 25년 동고 모로코나사임
마무오시스님을 은사로 득도
· 27년 동고 호마루불교전수
대학 후
· 46년 귀국 지암스님 은법사로
재득도
· 48년 대전 대흥사 대광선원 창건,
현재까지 인거수행



“독립운동 앞세워 세력 다툼이라니
환멸느껴 입산했어요
명리야말로 헛된 것인데...”

에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사
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도 생활환경
이나 정서와 감정에 따라 이 빛을 볼 수
도 있고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들고 마음에 의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
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마음을 깨끗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
해짐으로써 이 땅은 깨끗해 지기 때문입
니다.
사실 나는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3살

때 하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학
문을 배우고 싶어 아버지 몰래 집을 나
와 대구에서 고학으로 계성중학교를 졸
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배재
학당을 다니다가 외국에 나가 신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서울
봉익동 대각사입니다. 이때 대각사에서
만난 분이 용성스님이셨지요. 용성스
님은 신학문을 배우려면 원력을 세워 3
년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용성
스님으로부터 독립사상과 불교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각사에서 3년기도를 마치고 용성스
님의 허락으로 3·1운동이 일어난 이듬
해인 1920년초 일본으로 건너가 임명관
(立命館)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두교은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니
공부에만 전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중인 23명의 학
생들을 모아 '한국학생사상동지회'를 만
들어 조국독립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
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은 대각사에 있을 때 대각사 용성스님으
로 부터 배운 대각·독립사상이 큰 역할
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태극기
를 그리고 기회를 보아 만세운동을 벌이
려고 비밀결사를 하던 중 졸업시험을 앞
두고 발각돼 일부는 일본경찰에 끌려가
기도 하고 일부는 피신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친한 일본친구의 삼촌이 경찰서장
이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나는 위기
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내가
어찌나 비겁하고 초라하게 생각되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경찰서에
발을 지르고 '대한독립만세'나 실컷 부
르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

생활 속의 불교 126

우물안 개구리가 보는 한 낮의 길이는?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다. 고
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통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통을 굴릴 수 없게 된
다. 고로 고정관념부터 부수 버려라. 여짓껏
애지중지 해오던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
의 시각에서 훌쩍 벗어나 보라. 그러면 나
의 생각, 나의 법칙이 얼마나 우순운 것이
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
다면 그것은 관념의 벽이다.

수행이란 따지고 보면 생각의 감옥, 관념
의 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것이다. 한
생각의 차이가 실로 엄청 나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느끼는 한낮의 길이는
얼마나 짧을까 아마도 길어야 한 두 시간이
고작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물 구멍을 통해
서 보는 하늘은 동그란 모양일테고 그 동그
란 하늘을 가로 질러 태양이 한 끝에서 나
타나 한 끝으로 사라지는 시간은 해가 중천

에 떠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
는 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낮의 길이가
두 시간쯤 줄줄로 굳게 믿을 것이다.

수면 위로 한 번도 고개를 내밀어 본 일
이 없는 물고기가 느끼는 세상 모습은 어떠
할까? 이 세상은 늘 어두컴컴하고 바위와
수초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자궁 속의 아기가 느끼는 엄마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마도 '엄마는 벽처럼 생겼구
나' 하고 느낄 것이다.

텃새가 알고 있는 세상의 크기와 철새가
알고 있는 세상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텃
새는 고작해야 제가 동지를 틀고 있는 산 골
짜기와 멀리 내려와 보이는 마을과 하천, 그
리고 가끔씩 올라가 본 산등성이 너머 어디
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수만리를 넘나드는 철새의 눈에
비친 세상에는 드넓은 바다, 광활한 평야,
백설로 뒤덮인 고산, 수백 수천의 하천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시권 밖, 가청권 밖에 더 넓은 세계, 또다
른 차원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 그래서 가
르침은 무변무제(無邊無際)를 말한다. 공간
으로 말하면 가이 없고(무변) 시간으로 말
하면 과거·현재·미래가 다 공하다(무제)
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본 것이 세상의 전
부인 양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인 양
굳게 믿고 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나 뒷
새처럼 좁은 세계 속에 갇혀서 더 넓은 세
계, 또다른 차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귀머거리가 멀쩡한 사람을 보고 언제 천
동이 쳤더니 우긴다면 민망스럽고 난감하
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실은 다
르지 않다. 내 생각이 백번 옳다고 고집하고
나의 시각 나의 판단, 나의 관점이 바르다고
주장한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세상 읽기 세상 보기,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관 세계관 대인관(對人觀)은 다분히 자기중
심적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념세계란 대
체로 한 낮의 길이가 두 시간쯤 된다는 우

물 안 개구리를 닮아 있다. 스스로 통 속에
갇혀 살고 생각의 벽속에 갇혀있는 것
이다.

털 끝만큼이라도 벌어지면 마침내는 하
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엄정한 수행의 자세를 경쾌한 신심명(信
心銘·3조 승찬)에 보이는 구절이지만 생각
한번이 바르나 그르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
엔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가령 옹고집으로 제 생각에 얽매인 사람
과 한 생각 돌리서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사
랑과는 그가 느끼는 세계부터가 다르고 나
아가서는 삶의 질, 삶의 차원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관념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의 차이라고
나 할까.

통을 잘 굴리려면 통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야만 가능할 것이다.

협찬 : 신 선 회